

## “인쇄의 구심점 역할에 최선을”

인쇄종합정보 매거진을 표방하고 창간된 월간 프린팅코리아가 세 돌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쇄인을 비롯한 애독자, 광고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의 소명을 다하고 인쇄업계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비판과 칭찬의 조화를 이루는 보도로 독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쇄인 및 애독자 여러분! 인쇄업계는 물량이 계속 감소하고 내년 말로 단체수계약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위기국면이라 아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단체를 중심으로 인쇄인 모두 합심단결하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것입니다. 지난 2월18일 개최된 대한인쇄문화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제가 회장에 취임하면서 다짐한 것은 ‘위기에 놓여있는 인쇄문화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짐은 제가 임기를 마칠 때까지 한시도 잊지 않고 노력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인쇄업이 자생하려면 인구가 최소 7천만 명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는 5천만 명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수출에서 활로를 찾지 못한다면 자생적 발전은 불가능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인쇄문화가 재도약하려면 인쇄인 스스로가 ‘인쇄는 산업이기 이전에 문화’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쇄없이 지식이 존재할 수 없고 상품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인쇄인 및 애독자 여러분! 지난 5월19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 2005’에 참석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은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인쇄술에 이어 세계에 주는 두 번째 선물”이라면서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당시 교황 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 얻어온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부통령을 지낸 분까지 한국의 인쇄문화를 우러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경



대한인쇄문화협회  
홍우동 회장

내에도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의 활자판이 복원되어 전시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할 때도 한국의 상징물로 월인천강지곡 인쇄동판을 기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쇄문화는 세계사에 영원히 기록될 위대한 문화유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쇄종주국의 후손인 우리의 현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특히 단체수계약제도가 폐지되면 도산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오늘의 난

관을 극복하고 미래를 희망으로 열어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쇄문화의 홍보입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이라는 사실과 지식산업의 원천이 바로 인쇄문화임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방송인 김미화씨를 인쇄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한편 고인쇄박물관과 함께 직지심체요절의 전국순회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직지와 인쇄문화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인쇄인의 화합과 단결입니다. 이를 위해 인쇄강령을 새로 제정하고 인쇄문화대상에 진흥부문을 신설했습니다. 셋째는 장기발전 계획의 마련입니다. 2007년부터는 단체수계약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후유증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넷째는 수출증대입니다. 우리의 인쇄시설과 기술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인쇄기술과 시설을 십분 활용, 수출증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협회장 직속으로 구성된 ‘비전2010위원회’와 ‘홍보미디어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인쇄인 및 애독자 여러분! 대한인쇄문화협회와 프린팅코리아는 앞으로도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인쇄문화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업계의 화합과 인쇄문화의 미래를 여는 안내자의 역할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월간 프린팅코리아는 인쇄인과 독자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앞으로도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지 발행인>

## “업계난관 극복 선도적 역할을”

인쇄문화 계승 발전과 인쇄산업 진흥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는 ‘프린팅코리아’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한 지 엇그제 같은데 창간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벌써 창간 3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명실상부한 업계 월간지로서 업계 권익 보호를 위하여 애쓰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간 ‘프린팅코리아’는 대외적으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업계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진 인쇄기술과 업계의 동향, 정부의 정책방향 등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보도하여 업계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업계 정보지로서 ‘프린팅코리아’의 역할 중 대외적인 홍보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근 대기업들이 홍보를 통한 기업 인식제고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 개별적인 홍보 활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를 대표해서 인쇄매체들이 이러한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적극 전개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인쇄중주국으로서 과거의 위상을 되찾고 인쇄인들이 문화인으로서 제대로 대접 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우리 인쇄인론들의 큰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 인쇄업계는 현재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뒤돌아 보면 지금보다도 더 어려웠던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힘을 모아 난관을 타개해 나감으로써 오늘날의 성장을 일구어 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힘을 결집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인쇄단체들이 앞장서서 화합과 단결된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최근 단체장들이 과거에는 보기 힘들었던 잦은 회동을 통하여 단합된 모습으로 난국을 극복할 방안을 다 함께 모색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만의 조그만 이익을 추구하려는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업계 차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해 나갑시다. 인쇄업계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가족 중심적 경영 방식에



대한인쇄협동조합연합회

최창근 회장

서 탈피하여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차별화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요자들의 변화되는 욕구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때만이 성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업계도 글로벌화를 지향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향해 진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달로 오늘날은 국경이 무의미해졌고 기술과 자본의 이동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합니다. 한정된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으로 적극

진출할 때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인쇄물 수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막연한 통념을 과감히 떨치고 수출시장 개척에 참여합시다. ‘기업은 곧 인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출시장 참여를 위해서 수출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쇄단체에서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는 인쇄물 수출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수출 시장을 열어 나갑시다. 미래는 모르는 자에게는 두려움을 주겠지만 아는 자에게는 길을 열어가는 즐거움이 됩니다. 과거와 현재의 문제들도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기 이해하고 아전인수식의 해석이 매일 같이 반복되는 뉴스를 접하는 오늘날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며, 과연 그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날의 풍요로움을 이루어 왔음은 분명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의 단초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인쇄업계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도록 다 함께 매진합시다.

‘프린팅 코리아’는 우리가 처한 난관을 냉철히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시길 바라며, 명실공히 업계를 대표하는 종합 인쇄 전문지로서 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발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대한인쇄문화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미래 비전 제시에 만전을”

어느덧 프린팅코리아가 3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자세로 인쇄문화산업계의 언론을 선도해 오고 있는 프린팅코리아가 벌써 3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어려움을 딛고 얻어진 결실이기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자본과 기술이 중시되던 시대에서 지식과 정보가 보다 중시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적인 거대한 조류이기도 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은 다양한 소질과 능력을 지닌 창조적인 인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능적 인간보다는 변화의 물결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동적이고 창조적 인간만이 바람직한 미래를 열어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인쇄문화산업계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 해결이 참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정부나 단체들만의 노력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까닭에 모든 인쇄문화산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을 때 가시적인 정책 추진으로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특별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재)서울인쇄센터와 함께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쇄물 수출 상담회 개최, 시장개척단파견 등 실질적인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시각각 변화하고 인쇄문화산업 환경과 어려운 경제 환경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우리 인쇄업계의 현실에서 프린팅코리아가 앞장서 인쇄현장의 질을 높이고 생동감 넘치는 인쇄문화산업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그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쇄업계는 고품질과 단납기, 다품종 소량생산 등의 인쇄물 수요변화와 새롭게 전개되는 기술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함께 공동발전을 위한 조합은 물론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와 대한인쇄문화협회와 함께 상호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우리 인쇄문화산업인들이 올바르게 대처해 나가



서울인쇄정보협동조합  
이충원 이사장

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 특히 프린팅코리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인쇄문화산업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고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언론의 몫이며, 프린팅코리아가 만들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프린팅코리아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정한 인쇄문화산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오고, 인쇄산업 발전에 우리 인쇄문화산업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인

쇄산업을 소개하고 다양한 정보를 잘 빠르게 전달하려는 노력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오신 노력은 인쇄문화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프린팅코리아는 우리 인쇄문화산업인들의 정신적 '구심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인쇄산업의 기술 환경과 세계 인쇄산업의 흐름을 잘 빠르게 전달해 줌으로써 우리 경영인들은 물론 인쇄 기능인에 이르기까지 인쇄문화산업인들의 눈과 귀가 되고 인쇄문화산업인으로서 자긍심이 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한 읽을거리와 재미있는 볼거리들로 우리 인쇄인 가족들이 즐겨 찾는 잡지로 프린팅코리아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프린팅코리아는 인쇄문화를 이끌고 갈 인쇄문화산업인들의 소중한 언론매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쇄문화산업의 바람직한 전통과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면서도 변화의 물결을 과감히 수용하여 인쇄문화산업이 발전하는데 선도적인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연륜을 바탕으로 언제나 신뢰받는 정론지로서 언제나 중심에서 객관적인 눈과 귀를 가지고 바르고도 참된 언론으로, 인쇄문화산업인들에게 미래를 보는 안목과 식견으로 비전을 제시해 주는 언론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프린팅코리아 창간 3주년을 축하드리며, 우리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일동과 임직원들은 프린팅코리아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대하오며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과 프린팅코리아의 번창함을 늘 기원합니다.

## “활자발명국 자긍심 높여주길”



대한출판문화협회  
박명호 회장

프린팅코리아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식과 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 문화 시대에 인쇄기술의 선진화를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후대에 전승함에 있어 <프린팅코리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 출판업계에서도 이에 기대하는 바가 큼니다. 21세기는 사회 각 분야의 정보와 기술을 토대로 한 고도의 지식 산업이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시대며, 출판·인쇄문화 산업이야말로 최신의 정보와 지식의 보고로서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렇듯 도서는 단순히 종이와 잉크로 만들어진 상품이 아닌 인간정신의 표현이며, 사고의 매체이며 모든 진보와 문화발전의 바탕인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도서전인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참여, 우리의 다양한 출판·인쇄문

화를 중심으로 각종 공연이나 전시 및 예술 행사를 펼치게 될 것이며,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발명국이란 자긍과 희망으로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보다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한 찬란한 문화 선진국이라는 자긍심으로 인쇄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정보 및 업계 뉴스를 폭넓고 심층적으로 제공하는 매체로서 <프린팅코리아>가 그 역할을 다하여 세계 최고의 인쇄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프린팅코리아>의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오늘의 고통 함께 극복해야”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이창연 회장

“요즘 들어 부쩍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인쇄사에서 우리 표지를 작업해주시는 분들이다. 가끔 인쇄사에 나갔을 때 최상의 서비스와 장인 정신을 겸비하고 표지를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분들을 만나면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책의 내용은 나와 출판사가 만들었는지언정, 그들의 섬세한 손길이 아니라면 책의 얼굴과 몸은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다양한 ‘관계’ 속에서 책은 자신의 타고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지도 모른다.” (<책

으로 세상을 편집하다> 223~224쪽,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펴냄, 2005년)

어느 출판사 편집자의 고백입니다. 서점인들도 인쇄인들에게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서점에 가득 채워져 있는 아름다운 책은 인쇄된 책이고, 인터넷서점에서 판매하는 책도 대부분 인쇄된 책입니다. 서점에서 판매하는 책이 인쇄된 책인데 어찌 인쇄인들이 고맙지 않겠습니까.

이쯤되면 인쇄인, 서점인, 출판인은 공동운명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인쇄·출판·서점인이 새해 인사모임을 함께 가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동운명체이다 보니 어느 한 곳이 더 위에 지치면 다른 한 곳은 앓아 눕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출판사도, 서점도, 인쇄사도 모두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인쇄산업은 IT산업의 발전에 따라 종이책은 위기라고, 더 나

아가 종이를 근간으로 하는 인쇄문화의 역할이 줄 것이라는 ‘위기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인쇄문화협회는 2002년 7월 인쇄종합잡지 <월간 프린팅코리아>를 창간해 ‘위기’라는 이름의 ‘질병’을 이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변화의 흐름을 바로 읽고 미래를 대비하려는 적극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월간 프린팅코리아>는 그동안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습니다. 또한 서점·출판업계의 아픔이 인쇄업계의 고통임을 깨닫고 있기에 ‘고사 위기의 서점’, ‘도서정가제’ 등 서점·출판계의 아픔까지 진단해 주었습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사무국 책장 한 곳에 <월간 프린팅코리아>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3년치가 순서대로 꽂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인쇄, 출판, 서점계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때론 차분하게 때론 강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프린팅코리아>의 창간 3돌을 축하드립니다.



## “미래 위해 모든 갈등 해소를”



대한인쇄연구소  
박 충 일 이사장

우리나라 인쇄문화산업의 발전과 창달을 위해 힘써온 '프린팅코리아'가 창간 3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제가 대한인쇄문화협회의 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급변하는 21세기를 대비하고 기술정보 및 학문을 보급하고자 종합 인쇄잡지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인쇄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창간을 준비했으나 프린팅

코리아의 창간을 하지 못한 채 퇴임하게 되어 많은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어느덧 창간 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하니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인쇄인 여러분! 지금 우리 업계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단체수의계약 폐지를 앞두고 인쇄산업의 기틀이 흔들리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체장 선거로 인한 분열과 갈등으로 편가르기식 파벌이 조장되어 있고 무엇보다 단체장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데도 현재 일부 지방조합은 불미스런 문제로 심각한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지경입니다. 단체장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거시적인 마음으로 힘을 합쳐 연구해야 하는데 인쇄업계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업계가 한

치 앞 미래를 보지 못하고 편협한 사고와 갈등의 구도로 흘러가선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한 대동화합의 모습을 단체장들이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특히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진실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쓸데없는 갈등은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프린팅코리아는 명실공히 우리 인쇄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잡지로 업계 전반에 걸친 여론과 토론의 광장이며, 편파 보도를 배제하는 화합과 협력의 광장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업계의 대변자인 프린팅코리아는 한쪽의 의견보다는 보편타당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허심탄회하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정보와 기술이 게재될 수 있는 진정한 범 인쇄업계의 대표매체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한번 프린팅코리아의 창간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한국인쇄 상징하는 매체되길”



출판문화학회  
부 길 만 회장

〈프린팅코리아〉 창간 3주년을 축하합니다. 〈프린팅코리아〉 창간 3주년 소식을 들으며, 인쇄의 막중한 의미를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전세계적으로 인쇄의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 유럽에서의 조사입니다만, 지난 1천 년간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선정되었

다고 합니다. 서구에서는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 등장 이전과 이후로 역사를 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구텐베르크가 활동하던 활판인쇄술 개발 초기에는 저술가, 출판인, 인쇄인이 동일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소수에 집중되었던 중세기의 문화를 극복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지식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근대 사회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구텐베르크 이후 서구 사회는 개개인이 독서를 통해 활발한 사고를 하기 시작하였고, 자국어에 대한 관심과 함께 민족의식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된 데에도 활판인쇄술의 보급이 커다란 작용을 하였습니다. 당

시 인쇄술은 '신성한 기술'로 불리는 경의의 대상이었습니다. 초기 인쇄인들이 지녔던 이러한 역할과 의의는 현대에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은 구텐베르크보다 200여 년 앞서 금속활자를 발명한 나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쇄인들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한 개화기와 일제 시기에도 서적과 잡지의 발간을 통하여 국민 계몽에 앞장섰고, 해방 이후부터 오늘날까지도 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프린팅코리아〉는 제호 그대로 '인쇄 한국'으로서의 탄탄한 전통 속에서 인쇄문화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계속 맡아 나감으로써, 국제적으로도 '인쇄 한국'을 상징하는 매체로 뻗어 가리라 확신합니다.

## “인쇄종주국 자긍심 고취를”



한국잡지협회  
강원희 회장

인쇄문화산업 종합정보 매거진을 표방하고 창간된 월간 프린팅코리아의 창간 3주년을 전 잡지인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프린팅코리아를 발행해오고 있는 대한인쇄문화협회 홍우동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흐름에 가장 민감한 인쇄문화산업은 IMF 이후 오랫동안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간 프린팅코리아는 인쇄문화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우리나라 인쇄문화산업이 세계적인 첨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매체로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인쇄업계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물론 그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전문 잡지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인쇄문화산업은 모든 지식문화산업의 든든한 뿌리입니다. 특히 우리 선조

들께서 만드신 ‘직지심체요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입니다. 바로 인쇄인 여러분의 선조들이 이뤄 낸 쾌거입니다. 인쇄인들은 그러한 자긍심을 하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여건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선조들이 이뤄 낸 찬란한 역사를 잘 가꾸고 전승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 또한 프린팅코리아가 지향해 나가야 할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인쇄산업이 세계속으로 진출하고 첨단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프린팅코리아 임직원 여러분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대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창간 정신을 잊지 마시고 인쇄문화와 잡지문화의 선진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창간 3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관련업계와의 가교 역할을”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전덕수 이사장

인쇄문화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월간 프린팅코리아의 창간 3주년을 모든 제책인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 초기의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이제는 어엿한 업계 대변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오로지 임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언론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 생각하며 대한인쇄문화협

회 홍우동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노고에 힘찬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의 인쇄업계와 관련업계를 돌아보면 모두들 어려운 현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한 환경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정보에도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업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접하기가 어려운 실정므로 전문매체가 앞장서 선도적 역할을 맡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인쇄가 문화의 중심이라고 자부하며 인쇄문화의 진정한 꽃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쇄문화의 진정한 새 장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거시적인 안목으로 관련업계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균형적인 성장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도 프린팅코리아가 앞장서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모두들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과 제도에 귀기울이고 있으니 인쇄업계도 관련업계와 함께 변화하는 제도에 허심탄회한 의견을 제시해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 공생할 수 있음을 프린팅코리아가 널리 알려줄 때 인쇄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로부터 신뢰받는 대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프린팅코리아가 시대의 흐름이 중요한 길목에서 있음을 인식하고 인쇄산업과 관련업계의 믿음직한 가교 역할을 담당할 때 진정 사랑받는 매체로 무궁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제책인을 대표하여 창간 3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